



능나-나-님 숨결

* 6/22(월) ① 출애굽기 12 ② 아가 1-5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아가

- 1-3:5 사랑에 빠짐
- 3:6-5:1 사랑의 연합
- 5:2-7:10 사랑의 갈등
- 7:11-8:14 사랑이 자라남

구원

‘파멸로부터 구하다’라는 의미와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다’
라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구한다’는 측면에서 해방, 대속,
치유를 포함하므로 승리와 생명,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이 둘러싼
울타리 가운데 움직이기 충분한
공간을 분명하게 확보하신다는
뜻이 담겼다.

참고도서

- 두란노 How
-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 WBC 주석, 현대성서주석
- 다시 일어서는 목회
- 성서신학사전(종로서적)

아가서는 두 종류의 친밀함을 다룹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남녀 사이의 친밀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밀착된 관계들입니다.

아가서는 유월절 절기에 낭독되었습니다.
강제노동에 징집되고 혹독한 학대와 수모를 겪으며,
막 세상 빛을 본 아이들을 수장시켜야 했던 엄혹한 시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친히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출3:7).
야곱의 후손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한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12:38, 24:3).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해방을 기억했습니다(12:24-28).
그러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의식 속에서
유월절 정신은 퇴색되고, 축제는 제도로 고착되었습니다.
생생했던 구원과 해방의 기쁨, 기적과 자유가
언젠가부터 무미건조한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중심인 유월절 식사 후에
아가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공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향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끌어왔습니다.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생생한 <숨결>로 내 곁에 계심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유월(逾越)의 구원으로(12:13)
백성들을 향한 확실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유월절, 죽음을 불사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 하셨습니다(롬5:8).

하나님의 손은 크고 능하신 손입니다(출6:6).
동시에 부드럽고 세심하게 감싸시는 손입니다(아2:6).

아가서는 남녀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며 하나님과의 애틋한 사랑을 사모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며 표정을 읽고, 생각을 읽으며 알아가는 참 사랑,
손으로 만지듯 생생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를 갈구합니다.
아가서는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혼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남편 쪽 ‘아버지 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여인은 ‘어머니 집’에서의 사랑을 읊조립니다(8:2).
제도로서의 혼인을 넘어 유대감, 따뜻함, 끈끈한 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포도주보다 입맞춤을 원합니다(1:2).
포도주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여인은 <축제>가 아닌 <사랑>을 간청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가까이서 느끼는 <숨결>을 원합니다.

여인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열등감마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은 확실한 사랑 안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1:5).
그의 사랑 안에서 전 존재가 새로이 규정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극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꾸며주고 싶어 합니다(1:11).
발 빠른 노루처럼 여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심히 절박합니다.
밤이 되어 나올 수 없는 여인의 집 문 앞에서 서성이며 집안을 들여다봅니다(2:9).
왕비와 후궁, 시녀들은 권력과 비교로 우열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에게 여인은 세상에 단 하나,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귀중한 자입니다(6:8-9, 출19:5).

그 둘은 눈과 눈을 마주하며 사랑을 주고받습니다(1:15).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내게 속하는(2:16),
둘이지만 하나인 듯 충만한 관계를 경험합니다(요15:5, 계3:20).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흥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야8:6-7 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롬8:35)